

18살 챔프 리디아 전성시대 “GO”

LPGA 스윙잉 스키츠 클래식 2연패 ... 시즌 2승·통산 7승 18번째 생일 우승으로 자축...세계 1위·상금 1위 “노티치”

여자골프 세계 랭킹 1위인 뉴질랜드 교포 리디아 고(18)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스윙잉 스키츠 클래식(총상금 200만 달러) 우승을 차지했다.

리디아 고는 27일(한국시각)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인근 레이크 머세드 골프클럽(파72·6507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버디 6개와 보기 4개를 묶어 2언더파 70타의 성적을 냈다. 최종합계 8언더파 280타를 기록한 리디아 고는 모건 프레슬(미국)과 함께 18번 홀(파5) 연장 승부를 벌여 연장 두 번째 홀에서 우승 상금 30만 달러(약 3억2000만원)의 주인공이 됐다. 지난해 이 대회 우승자인 리디아 고는 대회 2연패를 달성했고 2월 호주오픈에 이어 시즌 2승째를 거뒀다. LPGA 투어에서 개인 통산 7승을 기록하게 됐다.

시즌 상금 90만8810 달러가 된 리디아

고는 상금 부문 선두에 올랐다. 3라운드까지 선두 브룩 헨더슨(캐나다)에게 3타 뒤진 4위였던 리디아 고는 마지막 18번 홀에서 약 3m 버디 퍼트를 성공해 극적으로 프레슬과 동률을 이뤘다.

마지막 조에서 경기한 프레슬도 18번 홀에서 약 4m 거리 버디 기회가 있었으나 조금 짧은 연장 승부가 성사됐다. 리디아 고 역시 17번 홀(파4) 2m 정도의 짧은 버디 퍼트를 넣었다면 연장전 없이 우승할 수도 있던 터였다. 18번 홀에서 열린 연장전에서 먼저 기회를 잡은 쪽은 프레슬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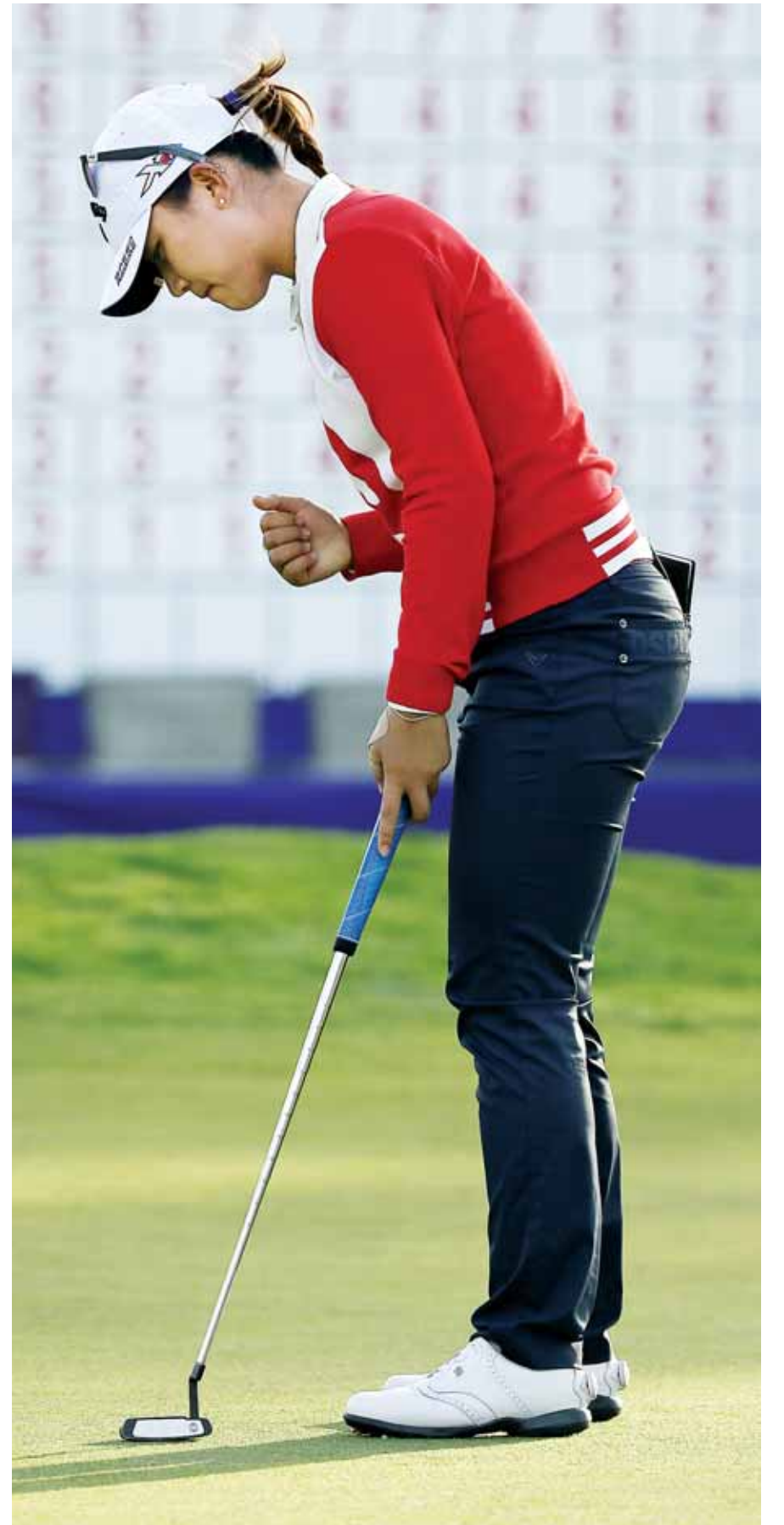
프레슬은 약 3m 거리에서 버디 기회를 잡았지만 오른쪽으로 살짝 빗나가 우승을 확정할 기회를 살리지 못했고 결국 같은 홀에서 열린 2차 연장에서 리디아 고가 챔피언 자리에 올랐다. 리디아 고는 94야드를 남기고 친 세 번째 샷을 1.5m에 붙였고 프레슬은 약 2m 조금 넘는 거리의 퍼트

를 다시 실패하며 고개를 숙였다. 2008년 10월 카팔루아 클래식 이후 6년 6개월 만에 개인 3승째를 노린 프레슬은 4라운드 18번 홀부터 연장 1.2차 홀까지 세 홀 연속 4m 이내 퍼트를 놓치면서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리디아 고는 특히 이 대회 2년 연속 우승을 차지한 것을 비롯해 2013년 12월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대회로 열린 스윙잉 스키츠 월드 레이디스 마스터스에서도 우승하는 등 대만의 비영리 단체 스윙잉 스키츠와의 좋은 인연을 이어갔다. 또 24일이었던 자신의 18번째 생일도 2년 연속 우승으로 자축하게 됐다.

3라운드까지 1타 차 2위였던 콰인서(25·JDX멀티스포츠)는 이날 2타를 잃고 6언더파 282타, 4위로 대회를 마쳤다. 장하나(23·비씨카드)와 양희영(26)이 4언더파 284타로 스테이시 루이스(미국)와 함께 공동 6위, 김세영(22·미래에셋)과 이미림(25·NH투자증권)은 3언더파 285타, 공동 9위에 올랐다.

/연합뉴스



리디아 고가 27일(한국시각)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인근 레이크 머세드 골프클럽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스윙잉 스키츠 클래식 연장 2차전에서 우승을 확정짓는 버디 퍼트를 성공한 뒤 주먹을 불끈 쥐고 있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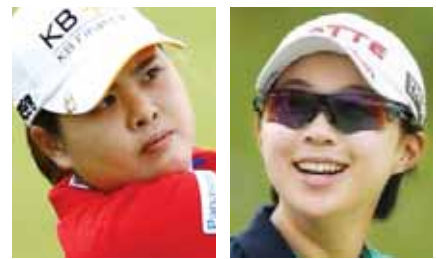
한국계 선수들 10개 대회 8승 LPGA에 코리아 열풍 뜨겁다



코츠챔피언십 최나연 혼다타일랜드 양희영



바하마클래식·롯데챔피언십에서 2승을 달성한 김세영.



HSBC 위민스 박인비 JTBC 파운더스 김효주

비롯해 5명의 한국 선수가 '톱10'에 진입했다.

한국인이 유독 골프에 강한 이유는 어린 시절부터 받는 체계적인 레슨, 남다른 연습량을 꼽고 있다.

세계랭킹도 수직 상승하고 있다.

시즌 2승째를 달성한 리디아 고는 세계랭킹 정상에 더욱 굳건히 다졌다. 27일 발표한 세계랭킹에서 리디아 고는 11.74점을 받아 2위 박인비(27·KB금융그룹)와의 격차가 줄어 들었다. 유소연(25·하나금융그룹)은 7위를 유지했고, 스윙잉 스키츠 클래식에서 공동 6위에 오른 양희영(26)은 지난주보다 2계단이 올라 10위가 됐다.

공동 18위를 차지한 박인비는 지난주(10.08)보다 0.11점 내린 9.97점으로 스테이시 루이스(미국)보다 0.07점 앞서며 간신히 2위를 지켰다.

박인비와 함께 공동 18위에 오른 김효주(20·롯데)도 6.18점으로 세계랭킹 4위를 유지했지만 5위 평산선(중국·6.10점)과의 격차가 줄어들었다. 유소연(25·하나금융그룹)은 7위를 유지했고, 스윙잉 스키츠 클래식에서 공동 6위에 오른 양희영(26)은 지난주보다 2계단이 올라 10위가 됐다.

공동 9위를 차지한 김세영(22·미래에셋)은 16위에서 15위로, 양희영과 함께 공동 6위를 차지한 장하나(23·비씨카드)도 21위에서 20위로 각각 한 계단 올랐다. 이번 대회에서 4위를 차지한 콰인서(25·JDX멀티스포츠)는 지난주보다 무려 180계단이 오른 141위로 경쟁 뛰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코리아의 질주가 이어지고 있다. 올 시즌 10개 대회 중 8개의 우승타이틀을 한국(계) 선수들이 차지, 80%의 일방적인 승률을 보이고 있다.

27일(한국시각)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의 레이크 머세드 골프장(파72·6507야드)에서 열린 LPGA 투어 시즌 10번째 대회 스윙잉 스키츠 클래식(총상금 200만 달러·21억5000만원) 최종 4라운드에서 뉴질랜드 교포 리디아 고(18·캘러웨이골프)가 2타를 줄여 쉽게 8언더파 280타로 모건 프레슬(27·미국)과 동타를 이뤄 연장전까지 가는 접전 끝에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시즌 두 번째이자, LPGA투어 데뷔 7번째 우승이다.

리디아 고의 우승으로 한국(계) 선수들의 승률은 더 올라갔다.

LPGA투어는 올 시즌 총 33개 대회 중 상반기 10개 대회를 마친 가운데 한국 선수가 6승으로 가장 많은 우승을 챙겼고, 리디아 고가 2승, 미국이 2승을 가져갔다. 결국 한국(계) 선수가 10승 중 8승을 우승으로 장식, 승률 80%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 선수들은 개막전부터 돌풍을 일으켰다. 최나연이 코츠챔피언십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시즌 첫 승을 장식했고, 이어 김세영(22·미래에셋)이 퓨어실크 바하마 클래식에서 두 번째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양희영은 혼다 LPGA 타일랜드에

서, 박인비는 HSBC 위민스 챔피언십에서, 김효주는 JTBC 파운더스에서 우승컵에 키스했다. 퓨어실크 바하마 클래식에서 우승한 김세영은 롯데 챔피언십에서도 다시 한 번 우승컵을 들어올려 올 시즌 가장 먼저 2승을 챙겼다.

KIA 클래식(이미림 2위)과 시즌 첫 메이저 대회 ANA 인스퍼레이션(김세영 공동 4위)에서 우승을 놓쳤지만, 마지막까지 우승 경쟁을 펼쳐 강한 인상을 심어줬다.

특히 지난 19일 끝난 롯데 챔피언십에서는 김세영이 우승한 것을 비롯해 상위 5명이 모두 한국 선수였고, 이번 스윙잉 스키츠 클래식에서는 4위 콰인서(25·JDX)를

접없는 소녀, ‘호랑이’보다 무서워

리디아 고 18세 이전 성적 타이거 우즈 압도

■ 18세 이전 리디아고 - 타이거우즈 비교

여자골프 세계 랭킹 1위 리디아 고(18·뉴질랜드)가 24일로 만 18세 생일을 맞은 가운데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40·미국)의 18세 때와 비교해 월등한 성적을 내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 골프 전문 매체 골프닷컴은 25일 리디아 고와 우즈의 18세 때 성적을 비교했다. 먼저 만 18세가 되기 전에 프로 무대 성적을 따져보면 우즈는 리디아 고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 우즈는 만 18세 이전에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4개 대회에 출전했지만 한 번도 컷을 통과하지 못했다.

반면 리디아 고는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 무려 49차례나 나와 반대로 컷 탈락이 한 번도 없었다. 아마추어 신분으로 올린 2승을 포함해 6승을 거뒀고 10위 안에 든 것도 28번이나 된다. 18세 이전에 투어 대회에서 번 상금은 우즈는 한 푼도 없지만 리디아 고는 269만 7천843 달러(약 29억원)에 이른다. 투어에서 첫 상금을 획득한 것은 우즈의 경우 1996년 9월 밀워키 오픈 공동 60위로 받은 2천544 달러였고, 리디아 고는 지난해 1월 퓨어실크 바하마 클래식 공동 7위에 오르며 획득한 3만1543 달러였다. 우즈는 만 18세 생일을 3년 정도 지나서 처음 프로 상금을 받았지만 리디아 고는 만 17세 생일도 되기 전이었다. 또 18세가 되기 전에



| 성적 | LPGA 6승 | PGA 4개 대회 모두 첫 탈락 |
|---------|----------------------|-------------------|
| 상금 | 269만 7848달러 (약 29억원) | 無 |
| 투어 첫 상금 | 공동 7위 3만1543달러 | 공동 60위 2544달러 |
| 공식 후원금 | 100만 달러 + α | 無 |

받은 공식 후원금 액수 역시 우즈는 '제로'였고 리디아 고는 100만 달러를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 매체는 "리디아 고가 그만큼 독보적인 활약을 펼치고 있고 우즈가 그동안 보여준 실력을 리디아 고가 재현할 것으로 기대할 만하다"고 전망했다.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080130-증-2696호

50년 전통, 대를 잇는 **한의원 북경랑**

알레르기성 비염, 축농증, 코피 해결
건강한 다이어트 한방 비만 클리닉

한의학박사 **박상준** 원장
전문, 진, 동, 신, 대, 교수

진료문의 (062) 227-7575

진료시간
평 일 : 오전 9시 ~ 오후 7시
토요일 : 오전 9시 ~ 오후 4시
일요일휴진, 공휴일은 오전진료

KT, 중앙초교, 구한미스포, 동부소방서, 한화생명, KT, 중앙초교, 구한미스포, 동부소방서, 한화생명